

The Genesis Gap Sidetrack

Is There a Gap Between
Genesis 1:1 & 1:2?

Timothy S. Morton

PreservedWords.com

The Genesis Gap Sidetrack

(결길로 빠진 재창조)

저자: 티모시 S. 모튼

옮긴이: 심재범

Secon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September, 2019

Published By

PreservedWords.com

모든 성경 참조 및 인용문은 공인된 킹 제임스 성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번역에 인용한 성경은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은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관점에서 창세기 간극(갭) 이론을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진정한 성경 신자가 되려면 간극(갭)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 “갭 팩트”가 존재할까요?

목차

서문	4
1 - 찾을 수 있나요?	6
2 - 히브리어로 돌아가자?	9
3 - 창조물은 얼마나 많은가요?	18
4 - 헛되이 창조되었는가?	26
5 - 누가 어둠을 두려워하나요?	30
6 - 정말 Re-plenish인가?	35
7 -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나요?	43
8 - 하늘의 무리	49
9 - 개요 및 요약	57
10 - 마지막으로 고려할 문제들	63

부록

1 - 창세기 갱이론 주의자들을 위한 질문들	69
2 - 간극(갭) 이론을 무효화 하는 구절	73
3 -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오해하는 사람들	83

서문

“창세기 갭이론”은 저자가 40년 이상 익히 알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는 구원 받기 전에도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지구 멸망과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재창조’를 보여주는 클라렌스 라킨의 도표를 보곤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루시퍼는 하늘에 반역했고, 그 벌로 주님은 온 땅(그리고 하늘까지)을 물로 파괴하고 루시퍼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당시 필자는 이 주장을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1980년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 필자는 “성경에 관한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 주제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무엇이 건전한 교리이고 읽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오늘날처럼 분별력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 시기를 전더내게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카리스마적 어리석음과 감리교적 죽음의 수렁을 헤매다가(그는 감리교인으로 자랐습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과 클라렌스 라킨의 책 『Dispensational Truth(세대주의적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그는 창세기 갭이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저자 모두 그것을 사실로 취급했습니다. 몇 년 후 필자는 피터 릭크만을 소개받았고 “lo and behold(보라)” 자신도 그것을 홍보했습니다. 이 무렵에 필자는 몇 년 동안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고 창세기 갭 이론을 조사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성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필자에게는 ‘갭이론가’의 사상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하기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옳은 이 저명한 성경 교사들도 이 교리를 믿고 장려하고 있으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한동안 그 교리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필자는 창세기 갭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 번 들여다보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일부 갭 지지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Gap Fact(갭은 있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흠...” 그는 “이제 그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이 문제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꽤 나이가 들었고, 성경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일부 성경을 믿는 형제들의 독특한 태도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하고 더 잘 알고 있기를 바라며,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증거”를 부지런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의도적인 속임수이거나(가능성은 낮음), 사실과 증거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가능성이 높음)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수사와 고상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35년 전보다 더 이상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종류의 ‘간격’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 찾을 수 있나요?

필자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껍을 직접 발견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글을 읽거나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해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보통 스코필드나 라킨을 언급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소개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너무 숨겨져 있고 난해해서 스스로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상세한 “설명” 외에는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건전한 성경 교리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교리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필자는 창세기 껍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일부 성경 신자들과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특정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형제들 중 일부는 껍을 믿는 것을 “진정한 성경 신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창세기 간격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은 불신이나 무지로 인해 “눈이 멀었다”고 암시합니다.

페리 데모폴로스(Perry Demopoulos)가 쓴 The Gap Fact의 한두 페이지만 읽어보셔도 이러한 “이마 때리기”¹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진실' 또는 '팩트'를 보지 못하는 독자들을 끊임없이 꾸짖습니다. 폭탄 같은 수사의 공세는 너무 지속적이고 피곤하며 그의 주장은 너무 인위적이어서 책을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책을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터 렉크만 박사는 창세기 껍의 주된 옹호자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껍이론 부인자”를 비난하지만, 일반 서신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는 창세기 간격이 창세기 1장의 첫 구절에서 설명되지 않는 “유추된” 교리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껍 이론”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껍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과 같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가르침입니다.” (렉크만 일반 서신 1권, 벤

¹ 강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설득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전 3:5)

“유추하는” 것은 “명시적인 진술보다는 증거와 추론으로부터 (정보를) 끌어 내거나 결론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지지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창세기 갭이론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유추하여 단편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흥미롭군요. 이와 같은 다른 중요한 성경 교리가 얼마나 많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 휴거(Pre-Tribulation Rapture)와 유사한 교리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휴거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살전 1:4). 논쟁은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창세기에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구절조차 없습니다.

창세기의 갭은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의 갭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에딘버그 대학의 토마스 찰머스(Thomas Chalmers)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거의 1800년이 지난 후 찰머스가 이 개념을 떠올릴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서는 갭이라는 개념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오래된 주석이나 저술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초대 교회 교부들”이 그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용문은 거의 없으며 인용문은 종종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하나처럼 모호합니다. 찰머스는 왜 간격이 있다고 제안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말했듯이,

“[찰머스는] 당대 지질학자들이 요구했던 광대한 시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창조 기록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견해는 1876년 조지 H. 펨버(Earth’s Earliest Ages, 지구의 초기 시대)에 의해 더욱 정교화되었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1917년 초판)의 각주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학계에서 새롭게 제안된 “지질학적 연대”를 다루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찰머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갭이론을 고안해 냈습니니다. 오늘날 창세기 갭을 지지하는 일부 성경 신봉자들은 성경과 지질학적 연대를 조화시킬 필요성을 부인하지만, 여전히 그런 이유로 창세기 간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니스 데이크(Finis Dake)가 참고한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지구의 나이에 동의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역사적 6,000년보다 많은) 세월을 넣으면 창세기와 과학 사이에 충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갭 지지자들은 대부분 지질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간격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사탄의 창조와 타락, 지구의 “재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갭을 고수함으로써 과학과 타협했다는 혐의를 피하려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간격이 수천 년(또는 심지어 수백 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 히브리어로 돌아가자?

원어로 돌아가자?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은 원어 논증을 사용하지 않지만, 창세기 꺾은 창세기 1장 2절의 “있었다(was)”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호소하여 “되었다(became)”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찰머스는 KJB에서 히브리어 “하야(hayah)”가 “있었다(was)”로 오역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근거로 이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단어가 “되었다(became)”로 번역되어야 하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다”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성경 해석 전술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핑계로 성경을 강제로 꺾맞추는 것입니다.

아서 커스틴스(Arthur C. Custance)는 그의 저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음 (WITHOUT FORM AND VOID)”에서 수백 페이지에 걸쳐 특정 “고대 권위자”와 히브리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킹 제임스 성경이 창세기 1:2을 잘못 번역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현대 지질학 이론”에 맞추기 위해 이 구절을 “땅이 폐허가 되고 황폐해졌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였다(was)’가 ‘되었다(became)’가 되어야 한다]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이의가 실제로 타당하지 않으며, 히브리어 구문과 문법의 규칙이 이 대체 번역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구문과 문법이 자신의 독해에 유리하다고 믿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성경 교정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종종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찰머스와 커스틴스 및 기타 성경 교정자들의 주장에 관계없이, 중요한 영어 성경 번역은 하나도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현대 번역본은 KJB 및 이전 번역본들과 함께 “하야(hayah)”를 “있었다(was)”로 읽습니다. 여기에는 ASV, ESV, NIV, RSV,

HCSB, NASB, WEB, NLT, ISV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많은 말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성경 번역가나 번역 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또 다른 호소는 종종 같은 구절에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라는 단어를 다루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히브리어 “토후 바보후(tohu vabohu)”는 이전의 심판이나 멸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릭크만 박사도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릭크만 박사도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토후 바보후”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전의 재앙과 그 후의 “재창조(remaking)”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릭크만 박사는 히브리어 동사가 영어 번역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without form and void”라는 영어 단어는 어쨌든 재앙이나 재창조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것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릭크만 박사는 1950년대 후반에 창세기 주석을 집필하여 1970년경에 출판했습니다. 위에서 그가 히브리어 동사에 대해 한 진술은 그의 사역 후반에 한 진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본문에서 갭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말한 이전 진술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을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태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갭 이론가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라는 구절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근거로 많은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은 지구를 그렇게 만든 거대한 파괴 없이는 왜 지구가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갭 이론을 접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야기로 읽었지만, 창세기 갭 이론에 대해 듣고 창세기 갭 고

글(Genesis Gap Goggles)을 착용하면, 창세기 1장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경 독자들에게 지구가 “형태가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지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당연하지만, 갱이론가들이 보기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형태가 없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구절의 5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형체 없음, 공허함, 흑암의 구성 요소를 봅니다! 이 구절의 핵심과 강조점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무언가를 “형성”하고 “형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존재인 아담에 대해 살펴봅시다.

아담과 그의 동산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주님은 아담을 땅에서 “형성(formed)”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형성된 물리적 구성 요소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태가 없음(without form)”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담의 몸은 ‘형성된(formed)’ 후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생명이 ‘비어 있는(void)’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적어도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27절에 주님께서 실제로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거나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에덴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을 “가꾼다”는 것은 “잘 정돈하고,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며...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웹스터 1913). 따라서 주님께서서는 에덴을 심으실 때 완전하거나 완성된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신 28:39 참조). 아담은 동산에 옷을 입히고 정돈한 다음, 그 후에 동산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심고 가꾸는 일을 시작하셨고, 아담은 그것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의 분명한 의미는 아담이 동산을 가꾸고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주님은 동산을 완전히 정돈되거나 질서정연한 상태로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통해 창조하신 것(아담)과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동산)을 창조하신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형성되지 않은 지구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담과 에덴이 ‘땅’을 형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체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창 1:9에서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실제 지구나 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져오는 “전제”에 대해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와 우주에 관한 자연을 연구할 때 가장 큰 전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창세기가 ‘지구’를 행성이나 지구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지구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할 때 태양, 달, 다른 행성, 별들로 둘러싸인 광활한 우주 안에서 회전하는 행성을 떠올립니다(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지구와 하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킹 제임스 우주론)²을 참조하세요.

성경에서 땅과 하늘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우리가 행성을 둘러싼 우주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늘이나 하늘에 있거나 그것들에 둘러

² King James Cosmology,

<https://www.preservedwords.com/kjcosmo/kjcosmo-title.html>

싸여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항상 땅 위에 있다고 말하며(창 1:20, 23:39, 출 20:4, 행 2:16 등) 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는 우주에 둘러싸인 행성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인류)은 자연이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계시됨으로써 그것을 배웠습니다(시 19:1). 하나님께서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진리가 온전히 알려지지 않게 하였고, 야벳이 그 진리를 발견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셈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땅”이 “형태가 없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담이 형성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형성되기 전에 “사람”(히. adam)이라고 불렸던 것처럼(창 1:26), 지구는 형성되기 전에 “땅”이라고 불립니다. 지구가 만들어져야 했던 구성 요소는 1:2의 “물들”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고, 슬러리³처럼 물속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 물에서 떠오르면서 실제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지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의 구성 요소가 아직 형성되거나 조립되지 않은 채로 건축 현장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나의 새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그릇에 담긴 액체 반죽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일 케이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이나 케이크가 “형태가 없는” 또는 미완성 상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땅’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9-10절에

9,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³ 액체, 일반적으로 물에 부유하는 밀도가 높은 고체의 혼합물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Earth(지구)”는 9절에 처음 등장하고 10절에서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로 둘러싸인 “행성 지구”가 아니라 육지입니다. 모든 표준 사전에서 “earth”의 기본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토양”, “땅” 또는 “바다와 공기와 구별되는 육지 지역”(Merriam/Webster)이며, 창 1:9까지 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실제적인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지구를 행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텅 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구가 ‘공허(비어 있음)’하다고 했을 때, 지구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비어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중에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은 사실 창조주간의 여섯째 날의 하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깎 이론가들은 종종 성경에 더 많은 계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다른 깎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니엘서 9:24-27과 이사야 61:1-2은 그리스도의 두 재림이 모두 언급된 예로 사용됩니다. 차이점은 이 경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매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들은 초림과 재림의 요소가 함께 섞여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깎이론은 성경에서 결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많은 분명한 언급을 보여줄 수 있지만, 깎 이론가들이 그들의 깎에 대해 만들어내는 언급은 진흙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깎은, 창세기 38장 12절, 출애굽기 2장 23절, 사사기 11장 4절, 역대하 21장 19절에서와 같은 구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⁴

⁴ 시간이 흐른 뒤에(it came to pass)란 구절을 보라

“창조하다(Create)”, “만들다(Made)” 또는 “형성하다(Formed)”

일부 갱 이론가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만드실 때 사용되는 두세 가지 성경 용어를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창조(create)”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ex nihilo”만을 의미하고, “만들다”(made, make 또는 form)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갱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 나오는 “Agapao, 아가페”(깊고 경건한 사랑)와 “phileo, 필레오”(친근한 사랑, 우정) 사이의 잘못된 “Greek Nugget, 그리스어 너겟” 논쟁과 비슷하게 들립니다.⁵ 갱 이론가들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없으면 하루를 망치기 때문에(출 31:17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용어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며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담론 안에 있는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간격 이론가들은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시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창조”와 “만들어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의 말씀대로 6일 만에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 지구의 잔해에서 지구를 다시 만들거나 개혁하신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주장이지만, 과연 이 주장은 어떻게 검증될 수 있을까요?

문제의 단어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개의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사실 “창조하다”(“bara”)가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원래의 창조물이 아닌 단지 회복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창조하다”를 사용한 창세기 1장 1절과 “만들다”

⁵ 역자 주: 신약 시대에는 “아가페”와 “필레오”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 저자들은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출처: <https://www.chick.com/information/article?id=nuggets>)

를 사용한 다음 구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2장 2-4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열왕기하 19:15;

역대하 2:12;

느헤미야 9:6;

시편 33:6; 96:5; 115:15; 121:2; 124:8; 134:3; 136:5; 146:6;

잠언 8:26;

전도서 3:11;

이사야 37:16; 44:24; 45:12, 18;

예레미야 10:12; 27:5; 32:17; 51:15.

분명히 갱이론가들은 잘못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의 큰 빛(해와 달)과 별들만 “만드셨다(made)”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도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창 1:7에는 “궁창”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갱이론 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분은 그것도 창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make)”, “창조하셨다(create)”, “형성하셨다(form)”고 말씀하신 이 구절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make, asah, 아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창 1:26)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created, bara, 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formed, yatsar, 야차르]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7)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created, bara, 바라]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made, asha, 아사] (이사야 43: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yatsar] 만들며 [bara]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bara]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yatsar].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18)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asah]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asah]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bara and asah]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bara]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asah] (창세기 2:2-4)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마지막 대못을 박으려면 느 9:6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거기에 “하늘 중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보이시죠? 즉, 모든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즉 “셋째 하늘”과 그곳에 거하는 모든 천사, 그룹 및 기타 하늘의 창조물들입니다! 본문은 주께서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하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깎이론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창조물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파괴한 다음, 기존의 물질로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은 “만들었다”는 것은 직접 창조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했으니까요. 깎이론 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과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3 - 창조물은 얼마나 많은가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디에 적합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수세기 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1. 이 장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이전의 완성된 창조물을 가리킨다는 입장
2. 장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현재적이고 유일한 창조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입장
3. 전체 창조 기록에 대한 개요 또는 요약이라는 입장.

물론 깎이론자들은 첫 번째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전체적이고 완전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한 구절에 “도시”, “새”, “왕”, “나라”, “산”(사 14장, 렘 4장) 등을 포함하는 문명을 가진 완전한 기능을 갖춘 아담 이전의 지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많은 문제 중 하나는 다음 구절의 첫 단어인 “그리고”입니다. 물론 “그리고”는 접속사이며 접속사는 관련 구절을 연결하여 연속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깎이론자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완전히 다른 시대와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구절 사이에 연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깎이론 주의자들은 “그리고”로 표현되는 연속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polysyndeton⁶이라고 불리는 비유법입니다. 폴리신데톤은 “산문의 리듬을 느리게 하여 인상적으로 엄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문장에 접속사를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효과를 위해 접속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이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d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took Achan the son of Zerah, and the silver, and the garment, and the wedge of gold, an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his oxen, and his asses, and his sheep, and his tent, and all that he had: and they brought them unto the valley of Achor.

⁶ 고대 그리스어로 ‘많은’이라는 뜻의 πολύ 폴리와 ‘함께 묶다’라는 뜻의 συνδετόν 신데톤에서 유래하였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수 7:24)

“그리고”의 모든 발생은 강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2절이 그러하듯, 어떤 구절이 폴리신데톤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여호수아 7장 24절이 분명히 증언하는 것처럼 긴밀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껌이론 주의자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폴리신데톤과 연속성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흐리게 하려고 하지만, 이 비유적 표현으로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현재와 유일한 창조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위의 두 번째 요점은 오늘날 널리 통용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거친 이론이나 추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창 1:1에서 우주의 기본 요소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셨고, 1:2에서 현재의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해 언급하신 다음, 이 요소들을 나머지 장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항목으로 형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위의 세 번째 요점은 창 1:1이 창 2:4과 함께 창조 기록의 요약 또는 실제로는 북엔드⁷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개괄적인 형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 창조하신 하나님 (창 1:1a)

B. 하나님 (창 1:1b)

C. 하늘과 땅 (창 1:1b)

D. 창조, 형성, 그리고 땅을 채우심 (창 1:2-31)

C. 하늘과 땅 (창 2:1)

B. 하나님 (창 2:2-3)

A. 창조하신 하나님 (창 2:4)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북엔드 사이에는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시기가 있습니다(창 1:2-2:3). 따라서 이 본문은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 2:4은 창조 기록을 “천지의 세대”라고 지칭하며, 성경의 다른 세대

⁷ 세워 놓은 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치는 물건

기록은 다음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창 5:1, 6:9, 10:1, 11:10).

분명히 필자는 1번 요점을 거부합니다. 이는 가정과 추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창세기 1장 1절을 나머지 장과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요점 중 하나는 그럴듯하며 성경 본문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필자는 1:8의 “하늘”과 1:10의 “땅”의 정의 때문에 3번 요점에 기울어져 있지만, 2번 요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어느 쪽이든 “하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 문제없이 부합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2번 요점에 따르면 그때는 땅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이라는 구절의 일부인데, 이것을 유대인 백과사전에서는 히브리어로 우주를 지칭하는 방식이며,

히브리어로 “하늘과 땅”이 함께 우주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땅에는 기초와 기둥이 있고(삼상 2:8, 시 75:4, 민 5, 욥 9:6, 38:6), 바다 위에 놓여 있으며(시 24:2, 136:6), 우주에 떠 있습니다(욥 26:7)... 고대 대부분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은 지구를 원반으로 생각했습니다(잠 8:27, 욥 26:10). 8:27; 욥 26:10; 사 40:22); 그러므로 그들은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메대 같은 민족들이 땅 끝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게제니우스⁸, 이사야 주석, i. 247 참조).

또 다른 출처는 이에 동의하며 이 구절이 “메리즘⁹”이며 “이 단어들은 따로 떼어내어 이해할 수 없고 하나의 통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땅”이 “하늘”과 결합될 때 그것은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의 전체 우주적 환경(땅, 공기, 바다, 하늘)을 말합니다(창 2:1; 렘 32:7, 51:48; 요 3:16; 벧후 3:7 등). 우리가 반복해서 보여 주었듯이, “땅”은 그 자체로 사용될 때 본질적으로 땅이나 흙을 의미합니다.

2번 요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본 요소가 창 1:1에 창조되었지만 창조 주 후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번 요점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창 1:9-10에서 ‘땅’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정의되기 전까지는 지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

8 빌헬름 게제니우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1786-1842)

9 전체에서 대조되는 두 부분의 조합이 전체를 지칭하는 수사학적 장치(또는 비유)

듯이, 1:2의 “땅”은 아직 구워지지 않은 케이크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언급됩니다. 실제로 케이크는 없고 그릇에 케이크 반죽만 있는데, “생일 케이크를 먹을 준비가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 이전의 창조

창세기 1장 2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물리적 세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이제 갱이론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1장 9-10절까지 땅이 나타나지 않았고, 2절에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일찍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이전 지구를 멸망시켰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상상력이 대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이미 창조하신 다른 많은 것들, 즉 물질/공간/시간의 연속체와 같은 물리적 현실의 구성 요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신 것처럼, 물을 창조하신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만들었다고 말할 때는 보통 최종 결과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물 다음에) 하늘, 땅,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육지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20절에 언급된 첫 번째 생명체가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물은 물고기와 새의 생명을 “bring forth¹⁰, 낳는다”. 흥미롭군요.) 이것들은 모두 창조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리적 물체와 생물은 하나님께서 먼저 조용히 창조하신 더 작고 작은 물리적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1장 2절에서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 또는 물리적 실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며 그 영역에 거하시기 때문에, 물리적 존재의 전체 개념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공간, 물질 또는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원자, 분자, 에너지, 물질, 공간, 원소, 그리고 아직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물리적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물방울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복잡한 균형과 법칙을 가진 이 물리적 실체를 개발하셨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원소들을 개발하신 다음 그것들을 결합하여 물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예비적 창조를 순식간에 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형적 사고방식¹¹의 일반적인 추론에 따르면, 그분은 단 1밀리

¹⁰ 낳다; 산출하다; (짜을) 내다; (열매를) 맺다의 뜻

리초라도 실제 현실보다 먼저 현실의 원리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이 일부의 주장처럼, 우주의 기본 원소를 창조한 행위라면, 물은 그때 창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1장 1절이 요약이라면, 기본 원소와 물은 창 1:2 이전에 조용히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주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최종 결과물”인 물리적 물질은 물입니다. 따라서 물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적 현실의 창조가 암시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물의 구체적인 창조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아담 이전의 창조물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창조가 시작됨

창조의 순서는 물리적 실재, 물, 빛(밤과 낮이 생겨남), “하늘”(물을 나누기 위해)이라는 궁창, 그리고 물이 모여 땅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땅이 1절부터 이미 존재했고 9절에서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몇지게 들리지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 95:5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순서를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먼저 바다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그분의 손으로 “마른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땅”의 창조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요나서 1장 9절,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지만, 바다(물)가 먼저이고 땅 또는 육지가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과 이 두 구절은 물이 먼저 창조된 후 “땅”이라는 “마른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구 크기의 원숭이 렌치를 창세기 깎 이론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¹². 9절에서 주

¹¹ 사건들이 직선적으로 순서에 따라 발생한다고 믿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예) “내가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원인은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히틀러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업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님께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빛이 있으라...”(3절), “궁창이 있으라...”(6절), “땅이 물을 내라...”(11절) 등과 일치합니다. 땅이 생겨나면서 창조되지 않았고 땅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더 일찍 물 밑이나 물 속에 있었다고 해도, 9절에서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른 땅”이나 “땅”이 아닙니다. (해저와 같은) 물 아래의 “땅”은 “마른 땅”이 아니며 성경의 정의에 따라 “땅”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1절의 “땅”이 지구를 물로 가득 찬 “땅”의 행성이라고 주장하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땅”이 행성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땅”이 “마른 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1-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물을 내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물을 내니라,

물은 “땅”에서 자랍니다. 1:11의 “땅”은 “마른 땅”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되시나요? 시 65:5에서 다윗은 “땅”과 “바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땅 전체를 가리키는 “땅의 모든 끝”에는 “바다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에는 지구 또는 육지 전체가 포함되지만, 땅에는 “마른 땅”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편 24:1-2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땅과 거기의 층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2,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서도 땅은 바다 위에 세워지거나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절이 “행성 지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용합니다. 2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나요? 좋아요, 확실히 밝

12 계획이나 활동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함

혀복시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은 실제로 그 명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지구가 땅, 바다, 하늘로 이루어진 전체 “행성”이라면 왜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까요? “땅”은 전체 장에서 “마른 땅”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성경기록의 증거가 당신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리적 현실은 땅, 바다, 하늘(하늘 포함)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부분은 동일하지 않으며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포괄하거나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참고 : 형제 여러분, 왜 창세기 꺾이론 주의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창세기 꺾이의 주장을 연구하지 않고 삼키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모두 물로 덮인 (다소) 단단한 지구의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땅이 실제로 “마른 땅”을 의미하며, 물이 먼저 창조되었고, 둘째 하늘이 그다음에 창조되었으며, 창 1:9까지 성경에 “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사실들은 창세기 꺾이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죠. 루시퍼가 해군에 있었다면 모를까!

성경에서 “the earth”라는 구절은 849번, “earth”는 987번 등장합니다.¹³ 땅은 주로 “마른 땅”으로 정의된다는 선례를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맥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어가 발견되는 대부분의 경우 “땅” 또는 육지 전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몇몇 경우 “지구”는 육지, 바다, 심지어 하늘을 지칭해야 합니다(누가복음 12장

¹³ 역자 주: PC Study Bible로 검색하면, the earth는 833회 나옴

56절에서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 참조). 누가복음 23:44을 보세요.

그 때는 여섯 시쯤이며 어둠이 아홉 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분명히 이 어둠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도 덮었을 것이지만, 강조점은 육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때때로 땅은 그 자체로 육지 이상의 것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지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해 말한 것의 대부분은 “하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의 “heaven”은 궁창이 “Heaven”이라고 불리는 7-8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하늘 중 어느 하늘일까요? 그것은 해와 달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heaven”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sky”로 알려진 첫 번째 하늘은 20절에서 창조됩니다. 이 하늘은 “하늘의 열린 궁창(the open firmament of heaven)”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1절의 창조 순서인 “하늘과 땅(the heaven and the earth)”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다음 몇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Heaven”을 만드셨고, 9-10절에서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 창 2:1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물리적 하늘 두 개와 마른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1절에 언급된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4 - 헛되이 창조되었는가?

목적에 의해 창조됨

겹이론 주의자들이 창세기 1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 45:18 말씀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들의 절망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것[하늘]을 헛되이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땅]을 지으사 사람이 살게 하셨다”는 말을 꺼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형태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으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뻔뻔한 얼굴로 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겹 구절이 그들에게 근시를 가져다 주었나요?¹⁴ 창세기 1장 2절의 본문은 지구가 “without form”, 즉 형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주께서 “그것을 형성하고...”라고 말합니다. 철자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까요? 주님은 지구의 형상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이 형성되고 세워진 후 여섯째 날이 되어서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창조 세계를 원하신 이유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의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수가 자신이 만든 흔들의자에 대해 “나는 이 의자를 쓸모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서 흔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겹이론 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습니다.

“형태도 없고 공허하다”, 또다시?

겹이론 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4:23입니다.

¹⁴ 역자 주: goggles를 goggles(보호안경)에 빗대는 말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여기서 우리는 창 1:2에 있는 것과 같은 단어를 발견합니다. 깎 이론가들 중에는, 이 구절이 창조에 대한 실제 언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Dake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유다에 대한 미래의 심판(렘 4:3, 5) 또는 심지어 환난을 가리킨다고 인정합니다.

본문의 문맥은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너희 행위들이 악하므로 내 격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3-4절)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미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주님께서 다가올 심판이 너무 가혹하고 가혹해서 적어도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의 땅이 형태가 없는 창조의 원래 상태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묘사하는 시적인 구절입니다! 인간은 창조 이래로 이해와 지식이 계속 타락해 왔기 때문에(22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도덕적 형태가 없는 존재로 축소시키고 있으므로, 주님은 지구를 물리적 형태가 없는 존재로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깎이론 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그것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절처럼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깎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들의 전술은 교활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깎 이론가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있었다”가 “되었다”로 이해되어, 아담 이전의 지구를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깎이 사실인 10가지 이유”라는 PDF에서 찾을 수 있는, 그들의 이중적 태도의 사례입니다. 저자는 성경을 믿는 사람처럼 들리도록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was, 있었다’에서 ‘became, 되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was’의 정의(“be” 또는

“become”을 의미할 수 있음)와 성경에서의 용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창세기 1:2을 더욱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표준 정의를 창세기 1:2에 적용하면 “was”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흠이 완전하게 창조된 후 형태가 없고 “비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¹⁵

“케이크도 먹고 떡도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눈앞에서 “있었다”를 “되었다”로 바꾸면서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3은 그들이 독자들에게 “있었다”가 정말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Gap Fact¹⁶의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지구는 분명히 “형태가 없고 공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렘 4:23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환난 중에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치기” 전에 한때는 형태가 없고 공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형태가 없고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는 예레미야 4장의 “형태도 없고 비어있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사건[렘 4:23]이 일어난 후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처럼 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예레미야 4장 23절의 사건이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어야 하며,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창세기 1장 2절은 지금 과거에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어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이고 복잡하며 거짓된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건전한 교리”와 “성경과 성경의 비교”라

¹⁵ 출처: https://www.av1611audio.com/gregkedro/gap_03_nine_reasons_for_the_gap_DRAFT_01.pdf

¹⁶ The Gap Fact, Perry Demopoulos(Th.D) 지음

고 부른단 말입니까? 그것은 스크린 도어보다 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두 진술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 진술의 상황이 다른 진술에서도 반드시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4장과 창세기 1장의 장면에는 온갖 종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는 “산”, “새”, “도시”, (사라진) “사람” 등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에는 물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의 심판은 깎이론 주의자들이 깎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멸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리적 물체는 물뿐이지만, 우리가 아는 깎이론 주의자 중 유다 땅(또는 지구)이 다시 물로만 남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특별한 경우에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24-27절에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24,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25,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26,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27,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땅에는 사람이 없고 하늘에는 새가 없으며, 도시는 폐허가 되고 농경지는 광야로 변했다고 말하며 “온 땅이 황폐해지리라.....”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23절과 27절을 비교하여 땅이 어떻게 땅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은 다른 시대와 다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4장은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지 않습니다.

5 - 누가 어둠을 두려워하나요?

사방의 어둠

겉이론 주의자 형제들 중 일부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정말 붙잡고 싶어하는 또 다른 단어는 “어둠”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 “어둠”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성경에서 “어둠”이 거의 항상 부정적이고 악하며(요 1:5; 8:12; 행 26:18; 골 1:13; 뱀전 2:9; 요일 1:5-7; 2:9-11 등), 하나님은 그 반대되는 “빛”이고 선하신 분(요일 5:1)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과 논쟁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이 빛의 전형이기 때문에 천지를 어둠 속에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어둠은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여기 그들이 편리하게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육체적 어둠이 아니라 도덕적 또는 영적 조명의 부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마 6:22-23; 눅 11:34-36; 요 1:5; 8:12; 12:35, 46; 요일 1:5; 2:8-9, 11 등). 성경에서 “어둠”과 “빛”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영적인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빛’은 긍정적인 요소이고 ‘어둠’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어둠이 시력을 방해하고 빛이 시력을 돕는 물리적 특성과 유사합니다. 때로는 육체적 어둠과 함께 영적 빛이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바울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창조 의 첫날에 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별이 그 예입니다. 밤하늘은 원래 어둠고 빛의 점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어둠은 기본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둠이 축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이집트인 사이에 어둠을” 두셨습니다(수 24:7). 또한 출애굽기 20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질은 어둠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영적 빛이지만 질은 육체적 어둠 속에 거하십니다(대하 6:1, 시 97:2).

어둠의 대상은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어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두었던 어둠은, 이집트인에게는 어둠일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과 광명이었습니다.

“...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출 14:19-20)

어둠은 또한 주님께 의해 의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형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나훔 1:8). 소경의 어둠(신명기 28:29)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실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어둠

물론 창조의 맥락은 물리적 빛과 그 빛의 부재로 인한 어둠입니다. 현재의 이해에 따르면 어둠은 물질이나 그 자체의 요소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이사야 45:7),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빛과 같은 물질적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히 모든 종류의 빛을 제거하여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 현실을 창조하실 때 물리적 어둠의 개념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현실을 창조할 때 물리적 우주 전체에 어둠과 추위라는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각각 빛과 열이라는 무언가의 부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주의 모든 부분은 열과 빛의 자연적인 힘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기 전까지는 온도가 절대 영도이고 조명이 절대 암흑 상태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은 당시 물리적 우주의 자연스러운 기본 상태입니다. 반드시 악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음의 표면”이 어두웠던 분명한 이유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이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수수께끼는 창세기 1장 2절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열원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물은 섭씨 0도 이하에서는 얼음으로 변하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존 창조물의 온도는 그 온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조용히 생성되는 것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열원도 함께 생성되었습니다.

이 열은 태양이 생성되기 하루 전인 셋째 날에 생성된 식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깍이론 주의자들은 성경 본문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빛을 계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창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더 인위적인 년센스입니다. 창조적 의미의 “Let”는 창세기 1장에서 여덟 번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은 인간을 창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론을 따르기 위해 궁창, 태양, 식물, 바다 생물, 육지 동물 또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create(창조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let there be...(있으라...)”의 형태를 사용하셨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물로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니라..... (창 1:20-21)

“물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깍이론 주의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로 불평을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며 영이시므로 그분의 빛은 영적인 조명과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 이전까지는 물리적 빛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기본 어둠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깍이론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둠이 진노와 심판의 결과이고 부정적인 것일 뿐이라면, 왜 하나님은 어둠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분은 물리적 어둠이 없는 현실을 형성하고 새로 창조된 빛

(그리고 나중에 태양)이 온 피조물을 끊임없이 비추도록 할 수 있었지만, 대신 1:4에서 어둠을 주변에 두셨고, 심지어 창 1:31에서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는 선언에 포함시키셨습니다(다음 섹션 참조). 갱이론 주의자 형제들은 그들의 주장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창조 주간에 시작될 때 ‘어둠’이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 창조하신 물리적 현실의 특성 때문에 어둠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영적 어둠은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는 죄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갱이론 주의자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뜨거운 공기”에 불과합니다.

모두 "매우 좋음"인가요?

갱이론 주의자 형제들 대부분은 주님께서 창조 주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포괄적으로 선포하셨다는 우리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1:4-5의 어둠이 좋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 중 일부는 궁창이 만들어진 둘째 날에 사탄과 그의 타락한 무리들이 하늘에 배치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그들의 교리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갱이론 주의자 중 일부는 주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다른 날처럼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일어난 일이 좋지 않아야 한다고 잘난 척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유를 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창조 주간에 하나님이 “좋았다”고 선포하신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말하지 않는 몇 가지 매우 적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지 “요점”을 반복하고 있고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날의 사건들만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은 “좋았다”고 일곱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날짜 기준이 아니라 사건 기준입니다. 한 날(둘째 날)은 어떤 것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두 날(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두 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1:10, 12, 25, 31). 또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1:3-5)고 말씀하신 첫째 날을 보십시오. 빛이 “좋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

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이 어떤 식으로든 악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다섯째 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새가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바다 생물과 새가 번성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숨겨진 신비로운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주님은 모든 것이 “좋았다”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들짐승에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은 포괄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어를 간단히 관찰하면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선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좋은” 선포 이후 단 한 가지, 즉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언어적 실수를 하지 않으시므로 “매우 좋았다”는 선포는 일주일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조금만 공부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6 - 정말 Re-plenish인가?

Fill(채울까요) 아니면 Re-fill(다시 채울까요)?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부터 읽을 때 현대 독자에게 차이를 제안할 수 있는 첫 번째 위치는 창 1:28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replenish”입니다. 현대 독자들은 “replenish”라는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아담과 이브에 의해 세상이 사람들로 re-filled(다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구가 다시 채워지려면 이전에 어느 시점에 가득 찼다가 어떤 이유로 비워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한 단어로 창세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를 다시 채우거나 무언가를 다시 할 때, 거의 독점적으로 replenish를 사용하지만, 이는 기본 정의가 아니며 1611년에도 전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2019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eplenish 동사

1 a : 사람이나 동물로 채우다 : 비축, 재고

b 고어 : 충분히 공급하다 : 완벽한

c : 영감이나 힘으로 채우다 : 자양분을 주다

2 a : 다시 채우다 또는 쌓다 예) 그의 잔을 다시 채우다

b : 좋게 만들다 : 대체하다

1b의 정의가 “충분히 공급하다”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완전하게 또는 풍부하게 채운다는 뜻입니다. 웹스터의 1828년 사전에도 “채우다, 숫자나 풍요로움으로 비축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Replenish는 “완전히 또는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채우다”라는 뜻의 “replete”라는 단어의 한 형태입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replenish”는 권위역이 출판된 지 21년 후인 1632년까지 “refill”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1612년에 리필이라는 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은 시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원

중세 후기 영어(‘풍부하게 공급하다’라는 의미): 고대 프랑스어 *repleniss-*에서 유래, *replenir*의 어간이 길어진 것, *re-* ‘다시’(강조를 표현하기도 함) + *plenir* ‘채우다’(라틴어 *plenus* ‘가득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풍부하게 공급하다’라는 뜻이며 ‘re’ 접두사는 ‘다시’ 대신에 ‘강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JB에서 *replenish*가 사용될 때마다 항상 완전히 또는 풍부하게 ‘채우다’라는 뜻이지, 꼭 ‘다시 채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창 9:1, 사 2:6, 23:2, 렘 31:25, 겔 26:2, 27:25). 창 9:1과 같은 사례에서도 *refill*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채운다는 것은 이전에 채울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채울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초기 영어 성경의 증거

영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KJB는 초기 영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초기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번역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땅에 *fille*(채우라),”(위클리프, 1388)

“...그리고 땅을 *fyll*(채우라),”(틴데일, 1530)

“...그리고 땅을 *fyll*(채우고) 정복하라,”(커버데일, 1535)

“...그리고 땅을 *fyl*(채우라),”(매튜스, 1537)

“....그리고 땅을 *fill*(채우라)”(제네바, 1560)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가들은 제임스 왕의 지시에 따라 주로 1568-1602년의 비숍 성경을 따랐습니다.

“... 그리고 땅을 *replenyshe*(채우라)”(비숍, 1568)

그런데 비숍 성경은 대부분 왕실에서 승인한 최초의 영어 성경인 1539년의 그레이트 성경, “... 그리고 땅을 *replenyshe*(채우라)”(*Great*, 1539)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replenish*의 사용법은 KJB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1539년의 *Great Bible*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가들은 그 지침을

따라 “fill” 대신 “replenish”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fill”과 “replenish”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¹⁷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자마자 일부 형제들은 “damage control(피해 통제)”에 들어가 온갖 종류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KJB가 replenish라는 용어를 refill로 만들어냈다. 그것은 향상된 계시¹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적 사용은 1632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창 9:1의 ‘replenish’가 창 1:28의 채우다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함이 있는 추론이며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할 때 리필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중 어느 것도 이전에 채운 것이 리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창 9:1의 ‘replenish’는 창 1:28의 단어를 어떤 식으로든 정의하지 않습니다. 노아 이전에 지구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Re 접두사는 요구합니다...”

어떤 깐이론 주의자들은 re-가 항상 무언가를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re- 접두사 논쟁에 뛰어들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접두사 re-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다시, 새롭게
- 기초의 완성 또는 강화
- 뒤로, 거꾸로

다시 하다(reapply, remake, renew 등)와 돌아가다(recede, return, regress 등)는 오늘날에도 흔히 쓰입니다. *완전히 또는 철저하게 하다*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사 re는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며, 1611년에는 훨씬 더 흔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replenish에 사용되었습니다(여기를 참조하세요).¹⁹ re 접

¹⁷ 역자 주: 그리스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Tyndale(1494~1536)의 Holy Bible Text Edition(2004)에는 fill로 되어 있음

¹⁸ 구약의 계시는 신약에서 더 밝히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것. 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과 공의를, 그리고 신약에서 은혜와 사랑을 계시함으로써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보다 밝히 드러내 주셨다.

두사는 기본 단어를 강화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다시’ 또는 ‘뒤로’가 아닌 강외어로 사용되는 접두사 re가 붙은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경외(reverence)”라는 단어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존경하다” 또는 “경외심을 품다”라는 뜻의 옛 단어 “vereri”에서 형성되었으며, re는 행동을 강화합니다²⁰(여기를 참조하세요). 따라서 두 경우 모두 re는 어근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replenish”의 접두사는 수년에 걸쳐 “다시”라는 의미를 추가한 반면, “경외하다”의 접두사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따라서 깎이론 주의자들은 1611년에 replenish의 의미로 다시 채우다(“plenish”는 “fill”의 옛 단어임)가 **완전히 또는 충분히 채우다**는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re 접두사 단어로 인해 원래 re 의미가 손실되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re-의 정확한 의미는 이차적 의미에서 상실되거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KJB에는 re로 시작하는 350개의 단어가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다시 하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예: read(읽다), require(요구하다), remain(남아있다), rebel(반항하다), reward(보상하다), rebuke(책망하다) 등). 깎이론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은 절박함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성경적 평행구절들

“replenish”의 접두사 re는 “충분하게 채우다”를 의미하는데, 성경 본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KJB의 한 가지 핵심 속성은 평행문을 사용하여 자체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fill)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창 1:22)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replenish)...” (창 1:28)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replenish)...” (창 9:1)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abundantly)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창 9:7)

¹⁹ <https://www.etymonline.com/word/replenish>

²⁰ <https://www.etymonline.com/search?q=reverence>

주님께서 노아에게 “땅을 채우라”는 사명을 다시 말씀하실 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명령에는 다시 채우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평행 진술의 첫 번째 구절은 “다산”의 핵심 목적이 “채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구절은 “풍성하게” 채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중간 구절은 “채우다”를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창 1:20과 1:21도 참조하세요.

노아의 후손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대한 예를 보려면 (출 1:7)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여기에도 결실과 증가와 관련된 “풍성하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풍성히 채우다”라는 “replenish”의 이 정의는 “replenish[ed]”가 나오는 다른 곳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have replenished).” (사 23:2)

“다시스의 배들이 네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히 채워져서(wast replenished)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겔 27:25)

“시돈의 상인들”은 “섬의 거주민들”을 가득 채웠고, “다시스의 배들”은 “심히 영화로운” 티루스가 될 때까지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이 구절에는 다시 채운다는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떨까요?

우리는 1611년에 *replenish*가 히브리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풍성하게 채우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Brown, Driver, Briggs 등에 따르면) ‘originalitis(원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replenish”로 번역된 히브리어 “male”(H4390)가 절대로 다시 채운다(refill)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 1:22에서처럼, 이 문맥에서는 항상 “채우다”를 의미합니다(창 6:11, 42:25, 44:1, 삼상 16:1, 왕상 18:33, 욥 15:2, 38:39, 시 83:16, 사 27:6 등 참조). 따라서 “male”는 다시 채우는 것을 의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껌이론 지지자들은, 실제로 권위역(AV)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갱이론을 홍보하려는 그들의 열렬한 탐구는 실제로 성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replenish”의 re는 강의어(intensifier)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fill” 대신 “replenish”를 사용한 곳은 그 구절을 더 강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Replenish”는 단순히 “fill(채우다)”의 동의어가 아니라, “완전히(completely), 풍부하게(abundantly), 또는 철저히(thoroughly) 채우다”의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fill(채우다)”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새 번역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별이며, 갱이론 주의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구별입니다.

replenish가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는 형제들은 그것이 최근에야 밝혀지거나 이해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KJB가 처음 출판된 후 200년 동안, 그 용어가 “풍성하게 채우다”를 의미한다고 믿어서, 아무도 그 용어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828년에도 여전히 주로 “채우다”로 정의되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아래의 다음 섹션에 비추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뜻이 항상 일치하는가?

창세기 갱의 주요 주장 중 하나로 replenish(그리고 re 단어)에 의존하는 갱 지지자들은,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replenish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고 무지하게 말하며, 수년에 걸쳐 의미가 바뀌어져 버린 다른 고풍스러운 영어 단어로 위선을 드러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prevent”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611년에는 어떤 일의 전조(pre-event), 선행(precede), 또는 그보다 앞서다(come before something)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prevent를 사용하면 구절이 어떻게 엉망이 될 수 있는지 보세요.

시 88:13,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를 막으리이다(prevent).

여기서 기도가 주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 사람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주님보다

앞서갈 것입니다. 더 일반적인 예를 보려면 살전 4:15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 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을 막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잠든 사람들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 보다 먼저 행하거나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롬 1:13의 “letteth”라는 단어와 딤후 2:8의 “let”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let”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지만, 1600년대에는 정반대의 의미, 즉 방해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KJB 독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갱이론 지지자들은 replenish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고풍스러운 영어 단어 사용으로 의도된 의미를 빠르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중성은 눈부십니다. 특히 그들이 지지하는 애완 동물 교리(pet doctrine)²¹가 있을 때 일부 형제들에게는 일관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풍부한 갱이론 주의자들 중 일부는 replenish 논증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논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기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replenish”에 대한 갱이론 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의미에서 무언가를 리필하거나 채울 때, 그 대상은 동일한 유형의 내용물로 리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 물잔을 리필하는 경우, 필수는 아니더라도 동일한 물질인 물로 리필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표백제나 모터 오일을 채우는 것은 어떤 다른 물질로 채워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부 갱이론 형제들의 문제는 그들이 아담 이전 지구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루시퍼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²¹ 아마도 Gap Fact theory를 비꼬는 말인 듯

그곳에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과 같은 인류로만 땅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종류의 창조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replenish”라는 말은 “풍성하게 채우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일부 형제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군요.

7 -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마도 깎이론 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구절 중 하나는 베드로후서 3:3-7일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구절만으로도 ‘참된’ 성경 신자에게 창세기 깎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벧후 3: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벧후 3:4】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벧후 3:5】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벧후 3:6】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 하였으되

【벧후 3:7】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시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깎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살던 아담 이전의 지구와, 하늘과 땅을 덮은 루시퍼의 심판의 홍수를 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대격변으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달의 분화구도 이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베드로후서 3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웃는 자들”로, “창조의 시작” 또는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Uniformitarianism(동일과정설)²²”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초기 창조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며, 때가

²² 과거의 자연환경에 작용했던 과정이 현재의 자연현상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로, 근대 지질학의 기초가 된 이론.

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또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웃는 자의 불평에 대해 베드로는 그들이 “기꺼이 무지”하다는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갱이론 주의자들에 따르면 비웃는 자는 무엇에 대해 무지한 것일까요? 그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왜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지, 이제 잠시 생각해봅시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하나님도 명시적으로 계시하지 않았으며, 180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실제로 홍보하려고 하지 않은, 아담 이전의 전 우주 홍수에 대해 어떻게 사람이 “기꺼이 무지”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고, 사도들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구약의 선지자들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노아와 그의 홍수를 언급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이전 장에서 노아를 언급했고(벧후 2:4-5), 그의 이전 책(벧전 3:20)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비웃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복수형)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조 주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려면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고 하늘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창조 주간 둘째 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궁창”을 존재하도록 말씀하시고 “Heaven”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갱이론 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이전의 하늘을 말씀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구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heavens”라는 복수형에 주목하십시오. 창 1:20까지 두 개의 하늘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갱이론 주의자들의 또 다른 결립돌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서 궁창은 해, 달, 별이 있는 두 번째 하늘로 알려진 곳을 만들고, 첫 번째 하늘인 sky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수준의 추론으로 베드로가 곧 언급할 홍수는 창세기 1장 20절 이후 또는 아무리 빨라도 창세기 1장 8절 이후에 일어났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상의 하늘을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성경적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하늘들이 “옛적에”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옛적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전 장에서 그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벧후 2:5】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성경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는 “옛 세상”, “홍수”, “선포자”가 있습니다. 문맥이 가장 중요하며, 베드로가 “옛 세상”을 언급하는 지점은 노아의 홍수이며, 물론 그보다 훨씬 이전의 창조물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의 우리와 심지어 수세기 전의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시 68:33), 지구가 물로 창조된 것과, 노아의 홍수가 모두 오래전 “옛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벧후 3:5에서 베드로는 “땅”이 어떻게 “물 위에 있고 물 속에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소 특이한 표현이지만, 성경 어디에서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껍이론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가 “큰 깊은 곳”에 낚시 바늘처럼 떠 있었다고 하는 아담 이전의 대홍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창 1:9-10에서 물 밖으로 나온 “땅”(“마른 육지”)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9-10절은 육지와 바다가 모두 보이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이 단어에 암시된 아담 이전의 재앙적인 대홍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땅” 또는 “마른 육지”의 초기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물 “안에”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 6절에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궁창, 즉 하늘을 사이에 두고 물이 나뉘었고, 그다음 날 낮은 물에서 땅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물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나와 육지를 형성할 때 물 속에 있고, 하늘(sky) 또는 궁창으로 나뉜 물 사이에 있습니다.

3:6에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 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조 후 약 1700년 후에 일어났지만, 5절의 같은 물로 ‘넘쳐서’ 멸망한 ‘세상’은 5절과 6절이 같은 물, 같은 세상을 언급함으로써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물은 심판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껍이론 주의자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5절과 7절에서 그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6절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땅’은 물리적으로 마른 육지 또는 육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물리적 땅에 존재하는 사람, 사회, 왕국 또는 문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세계 질서입니다. 명확한 예는 이사야 23:17의 마지막 부분과 이사야 18:3을 참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전형적인 신약의 예가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구는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한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문맥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갱이론 주의자들은 6절의 “세상”이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5절의 “하늘들”과 “땅”을 모두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더 인위적인 교리일 뿐입니다. 베드로가(그리고 거의 모든 신약 성경 저자들이) “세상”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벤후 2:5로 몇 구절만 돌아가 보세요,

【벤후 2:5】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여기서 ‘세상’은 전 우주를 의미하나요? 아니요, 지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사회와 방식을 가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악한 세상(갈 1:4)의 “신”은 사탄입니다(고후 4:4).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은 인류를 포함한 숨 쉬는 세계입니다. 이 시기를 “노아의 시대”라고도 불렀습니다(마 24:37, 눅 17:26). 다른 시대와 세상이었지만 다른 땅이나 하늘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세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당시의 세상은 멸망했지만 “지구” 자체는 홍수로 인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물로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 증거는 홍수가 끝난 후 주님께서 지구의 정상적인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지구 위나 지구 안에 아무것도 다시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물러가자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물로 멸망하는 동일한 “세상”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물리적 땅과 하늘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창 7:23)로 인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육지 동물 포함)가 물에 의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있던 하늘들과 땅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파괴된 것만 알았기 때문에 대신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들과 땅”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표현되는 방식 때문에 갱이론 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이전의 하늘과 땅이 파괴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그러나 [루시퍼의 홍수로 파괴되고 하늘들과 땅으로 대체된] 하늘들과 땅은 지금...”이라고 읽습니다(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갭 고글(Gap Goggles)이 사람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은 창세기 갭을 사방에서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하늘들과 땅이 파괴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세상”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멸망하다”의 기본 정의는 “죽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요 10:28, 행 8:20, 벧후 3:9). 주님은 창 6:13에서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에서 현재 하늘들과 땅이 다가오는 불의 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홍수 이전의 세상 또는 “노아의 날”과 대조되는 “지금” 또는 현재의 물리적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와 시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하늘과 땅은 5절의 “옛적부터 있었던” 하늘들과 땅과 동일합니다.

홍수로 인해 하늘들과 땅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땅은 비를 본 적이 없었고 하늘들도 비를 생산한 적이 없었지만(창 7:11),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땅이 녹아내려(벧후 3:10)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다가오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홍수 이전의 하늘들과 땅이 오늘날의 하늘들과 땅이라는 것은 다른 구절 하나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이 있을까?

갭이론 주의자들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세기 1:1의 최초 창조
2. 루시퍼의 홍수로 당시 존재하던 세상이 파괴됨 (창 1:2)
3. 새로운 하늘과 땅의 재창조 (창 1:3-31)
4. 노아의 홍수 (창 6-8장)
5. 다가오는 불에 의한 지구의 멸망 (벧후 3:7)
6. 그리고 또 다른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됨(벧후 3:13, 계 21:1)

이렇게 되면 갭이론 주의자들은 세 개의 지구를 갖게 됩니다. 최초의 지구, 루시퍼의 홍수 이후의 지구, 그리고 다가오는 불의 심판 이후의 지구. 그러나 성경은 두 개의 지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더라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지구’에 살고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는 다른 지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명백한 문제에 대해 합당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의 지구를 “지구”로 간주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신자라면 그들의 정교한 주장을 고려할 때 잠시 멈칫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창세기 갭 시스템은 가장 단순한 구절도 엉망으로 만들거나 왜곡해서 설명하지 않고서는 수용하지 못합니다.

8 - 하늘의 무리

주민의 무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host(군대)”라는 용어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의 모든 군대”, 즉 모든 “하늘들과 땅”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ost”는 가장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로, 한 장소의 거주민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신 4:19, 17:3, 아모스 5:26), 하늘과 땅의 군대(창 21:22, 출 14:4, 대하 18:18, 욥 25:3 등)와 같은 물리적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의 거주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나 그룹과 같은 하늘의 존재(창 32:2, 수 5:14, 왕상 22:19, 시 103:21, 148:2, 사 24:21, 눅 2:13)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2:1과 매우 유사한 구절은 느헤미야 9:6입니다,

【느 9:6】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함께” 만드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창세기 1:6-8에 따르면 주님은 둘째 날에 적어도 하나의 “하늘”을 만드셨고, 따라서 성경은 주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군대”를 구성하는 존재들을 언제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느헤미야 9:6로부터 창조 둘째 날이 그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늘과 그 군대가 땅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창세기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출 20:11, 시 33:6, 146:6 등).

따라서 창조 둘째 날을 주님께서 “셋째 하늘”(“하늘들의 하늘”)과 둘째 하늘(“Heaven”)과 그 모든 영적 거주자들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성경적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넷째 날까지 해, 달, 별과 함께 육체적 주민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룹, 스랍, 천사, 루시퍼,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다른 모든 정사들(principalities)이 포함됩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을 직관적으로 읽으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욥기 38:4-11에서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질서와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님은 38:4-5에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욥 38:5】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우리는 창세기 1장 9-10절(히 1:10)에서 땅의 기초가 놓인 시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마른 육지를 물에서 건져내어 “땅”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참고: 독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부 형제들의 영향을 받아 욥기 38장 4절이 우주에 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마른 육지를 땅으로 정의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구가 대륙과 같은 육지라면 지구에 기초(시 102:25, 104:5)와 기둥(삼상 2:8, 욥 9:6)이 있다는 모든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우주에 떠 있는 행성 전체가 어떻게 기초나 기둥이 있어 그것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욥기 38:4-6에서 주님은 분명히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마른 육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땅의 기초를 바다 바닥에 깔고, 그 크기를 측정하고, 선이나 기둥을 측량하고, 모퉁이 돌 같은 것을 놓았을 때입니다.

지구의 기초는 이제 대륙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요나서 2장 6절에서 요나가 말한 “산들의 밑바닥, 자기 빗장들이 있는 땅”일 수 있습니다. 기둥과 모퉁이 돌은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 둘째 날 궁창과 하늘과 함께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 별들”은 주님께서 바다의 혼돈에서 땅을 일으키셨을 때 함께 노래하며 기쁨으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욥기 38:7)! 그들이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엄청난 본능과 지적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루시퍼와 그의 무리

겍이론 주의자들의 마지막 주요 주장은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아담 이전 지구의 거주민이었으며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클라렌스 라킨은 그의 고전 <세대주의적 진리>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 기록[에스겔 28장]이 암시하는 바는, 사탄이 천사 무리와 함께 원시 또는 태초의 지구를 책임지게 되었고, 그가 교만(딤후 3:6, 사 14:12-14)을 통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으며, 그를 벌하기 위해 지구는 혼돈 상태에 빠졌고, 사탄과 천사 무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계시록 12:4)가 천국(Heaven)에서 제외되어 하늘에 거처를 마련했다.....”

라킨은 계속해서 “악마(demons)”에 대해 ...

“‘악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전 지구 거주민들의 육체가 없는 영이라고 믿으며, 그리스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들어오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들이 한때 인간의 몸과 유사한 몸을 소유했다는 증거로 간주된다.”라고 말한다.

겍이론 주의자들은 아담 이전 지구에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두 구절(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설명이 불분명하고 상당히 모호합니다. 각 구절은 주로 이방인 왕을 가리키지만, 왕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이 그 영적 실체로서 루시퍼에 대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겍이론 형제들의 주장에 동의하므로,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만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 이 구절을 포함하여 성경 어디에도 이 두 구절에서 사탄이 언급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곳이 없으므로, 사탄이 언급되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겍이론 주의자들과 많은 겍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이 사탄을 가리킨다고 믿는 주된 이유는, 성경에 이

구절의 묘사에 부합하는 다른 인물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사탄의 제자, 곧 다가올 적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사실 이사야 14장은 미래의 사건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기껏해야 사탄에 대한 암묵적인 언급을 할 뿐이므로, 깎 이론은 다른 암묵적인 믿음에 근거한 암묵적인 믿음이 됩니다! 오류의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교리를 확립해야 할 근거가 아니며, 그러한 복잡하고 인위적인 믿음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은 언어 남용이자 불안감의 신호입니다. 사실은 증명될 수 있지만, 깎 이론은 증명과는 여러 단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증명 없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그 내재적 약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28장 13-19절과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대와 순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어떤 진술이 인간 왕에게만 해당되고 어떤 진술이 루시퍼에게만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에스겔 31장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마스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겔 28:13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모든 보석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 단어를 인간 왕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유적이거나 과장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두로 왕은 에덴에 살지도 않았고, 자연적으로 보석으로 덮여 있지도 않았으며, 악기를 인격의 일부로 직접 창조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말씀은 왕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타락하기 전 왕의 영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에덴인가, 두 개의 에덴인가?

깎이론 주의자들의 문제는 에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에덴동산과 아담과 이브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창세기 2:8에 동산이 심어졌고 아담은 곧 그 안에 배치되었지만, 깎이론 주의자들은 루시퍼가 창세기 1:2 이전에 타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에덴에 있었을 수 있습니까? 그들

의 대답은 그들의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인위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단지 확실한 성경적 증거 하나 없이 이전 지구에 식물이 아닌 광물로 구성된 또 다른 에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편리한가요! 성경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당신 자신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군요!

이 주장만으로도 깎 이론을 고려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의심스러운 가정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신념 체계는 매우 회의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다른 가능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만 채택해야 합니다.

참고: “에텐”과 “하나님의 정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하려면 에스겔 31장 8-9절을 살펴보세요. 이 구절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텐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파라오도 에텐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한 번에 하루

에스겔 28:13과 28:15은 또한 깎이론 주의자들에게 또 다른 딜레마, 즉 루시퍼(사탄)가 “창조된” 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깎이론 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의 날이,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며 그 장에서 성경의 첫 번째 “날(day)”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곧바로 겔 28:13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루시퍼가 실제로 “한 날”에 창조되었다면, 그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깎이론 주의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에스겔 28장의 “날”이 실제로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정 기간을 말하는 “날”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날”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주의 날” 등), 에스겔 28:13의 “날”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무언가를 창조하신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깎이론 주의자들은 이 경우 “날”을 비문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각 단어를 “문자적으로(literally)”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자랑합니다.

깎이론 주의자들이 사탄에 관해 호소하는 또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4

절입니다(요일 3:8 참조),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

이 구절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마귀가 “처음부터(from the beginning)” 살인자였고 “시작(beginning)”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 또는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틈새”에 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들리지만, 성경에서 “시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형제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다른 구절 하나만 살펴봐도 그들의 이중성과 일관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세요,

【막 10:6】 창조의 시작부터(from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창조에 대해 “시작”을 사용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껌이론 주의자들은 이 “시작”을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시작”과 같은 “시작”으로 간주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 구절은 창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창세기의 간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시작”에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루시퍼의 지구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재창조”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절에 바로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 타락했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천사와 그룹과 같은 천상의 존재를 포함하는 천군 천사는 둘째 날 궁창 또는 천국(Heaven)과 함께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루시퍼 또는 사탄의 타락은 창세기 2장 4절과 3장 1절 사이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과 3장 1절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따르면 루시퍼가 에덴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8, 15). 따라서 에덴은 아담의 원래 집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신 시기에 루시퍼는 그곳에 있다가 타락했으며(이사야 14:12-16),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그의” 동료 “영들”도 타락했을 것입니다(벤전 3:19, 유 1:6).

참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게”(창2:15)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루시퍼(사탄)가 그곳을 영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추측이지만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일부 갱이론 주의자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들먹이며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하며, 그 일이 갱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최초의 창조라면, 루시퍼(사탄)가 악하게 창조되었으므로, 본문에 “처음부터”라고 명시된 것처럼 최초의 “처음” 이후 언젠가 타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사탄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언제 누구를 죽였습니까? 물론 그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죽음의 행위로 이끈 것은 창조의 주간이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창조와 타락을 포괄하기 위해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탄과 창조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위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틈새”(웃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기록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상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왕” 또는 “왕자”?

일부 갱이론 주의자들은 바울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인용하여 마귀가 아담 이전의 땅을 “왕” 또는 “왕자”로서 지배권을 받았다가, 타락과 추방으로 지배권을 잃었으며,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으로부터 다시 그 지배권을 되찾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갱 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세상과 땅이라는 용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고후 4:4의 세상은 왕국과 나라와 사람

으로 이루어진 세상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라고 말했습니다.(눅 4:5-6)

따라서 왕국과 국가의 세속적 권력과 영광은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주님은 사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다른 곳(요 12:31, 14:30, 16:11)에서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적 지구 자체를 통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왕국들이 언제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로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때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세상에 대한 “왕” 또는 “왕자”의 지배권을 뱀에게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탄이 이전 지구에서 “왕”이었거나 이전 지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9 - 개요 및 요약

정말 그렇게 복잡할까요?

창세기 1장의 직설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깡이론 주의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 “2절은 다른 구절과 다르다.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고 외치며 신음하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이야기의 범위 내에 주석의 일시 정지를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현대적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1. 오늘 저는 오븐에서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2. 이제 케이크는 그릇에 담긴 반죽일 뿐입니다.
3. 반죽을 팬에 붓고 주위에 펴고,
4. 그런 다음 팬을 오븐에 넣고 구웠습니다.
5. ...이렇게 저는 오븐에서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이 비유는 서론(#1), 설명(#2), 취해진 행동의 세부 사항(#3-4), 그리고 마무리 진술(#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삽입된 주석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와 유사한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나서 3:3-4을 보세요,

- 3a,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 3b,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 4, 그리하여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3a절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개하는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절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3b절은 이야기에 삽입된 주석입니다. 다른 예로는 이야기에 “금”에 대한 주석이 삽입된 창세기 2장 11-12절과 아브라함에 대한 주석이 삽입된 창세기 13장 2절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의 구조는 어떤 종류의 ‘틈(ga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 주간 이야기는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장으로 문제를 흐리게 하려는 깡이론 주의자의 도움 없이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깎이론 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거의 모든 논거를 다루었습니다.

- 그들 중 일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2의 “있었다(was)”는 “되었다(became)”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창조하다(create)”, “만들다(made)”, “형성하다(form)”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깎이론 주의자들이 그것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 창세기 1장의 “그리고”는 비유적인 표현(polysyndeton²³)이든 아니든 구절들을 하나의 단위로 연결합니다.
- 이사야 45:18에 대한 깎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리석고 언어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 예레미야 4:23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매우 추측적이고 가정적이며 실제로 미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특정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주님께서 창조 주간 내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주님은 마지막 “좋았다”고 선언하신 이후 단 한 가지 창조물(사람)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 “replenish”는 “완전히 또는 풍부하게 채우다”라는 뜻의 고어이며, 그들이 이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진리에 대해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 베드로후서 3장의 심판에 관한 베드로의 담론은 아담 이전의 지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미 문맥에 있던 창조와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 성경에서는 “earth(땅)”를 “행성”이 아닌 “마른 육지”로 정의합니

²³ [수사학] 접속사 접속(연속해서 여러 개의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

다.

- 땅이 물에서 “마른 육지”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 루시퍼는 아담 이전에 에덴에 있었을 수 있고 창조 주간 이후에 타락했을 수 있다는 사실.
- 갱이론 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거나 무시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간극(갱) 이론은 성경과 “현대 지질학”을 조화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새로운 “과학적 세계”에서 성경의 관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성경을 옹호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론은 조지 펨버, C. I. 스코필드, 클라렌스 라킨과 같은 좀 더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형제들에 의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여전히 지구의 명백하게 오래된 나이와 루시퍼의 추방 및 “악마”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근본주의자들과 또는 성경 신자들은 “광대한 시대(vast ages)”를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왜 굳이 갱이 필요한가?”라는 당연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세 구절

우리는 이 논문에서 독자들에게 여러 성경 구절을 언급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창세기 갱이론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표현이 매우 단순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없는 성경 독자라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 (출 20:11)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 (막 10:6)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계시록 21:1)

이 구절들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갱이론 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을 그대로 받

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은 세대주의적 색채를 띤 까다로운 구절이 아니라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첫 번째 구절**로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명확히”한 다음 “만들어진” 이 “창조”가 아니며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다시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창조의 시작”이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초기 “시작”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창조하는 동안, 인간의 창조가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실제로는 “첫 번째 지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두 번째 지구라는 주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성경 구절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위의 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신자들은 모호한 구절을 더 명확한 구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진실하고 일상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갭에 관해서만큼은 예외로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 가지와 같은 간단하고 명확한 성경 구절을 뒤쫓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면, 그 교리는 매우 의심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또는 “건전한” 것으로 확립하려면, 교리가 실제로 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창세기 간격 이론가들은 성경에서 그 어떤 핵심 교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간단한 사실은 갭이론 주의자들이 간극(갭)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구절이 다른 곳에서 더 적절하고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구절은 “철저히 다루어져야”하고 창세기 갭 고글(Gap Goggles)을 통해 보아야만 그 안에 있는 간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증거” 구절에 매우 많은 것을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입증의 부담과 목적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창세기 갭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

임은 창세기 갭이론 주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갭이론 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구절에 대한 다른 이해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갭이론 주의자들은 그 구절의 직접적인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고려되려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필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갭이론 주의자들은 갭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특히 현재 갭이 수백 또는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루시퍼의 홍망성쇠를 이 기간에 끼워 넣어 신빙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더 쉽게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구절의 의미를 포기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전하고 확실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햇빛 아래 서 있다면, 태양이 비추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인가?

창세기 갭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거의 숨겨져 있고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삼류 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교리와는 달리, 갭이 있다고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을 향한 행함과 섬김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인데도 신자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서기 1814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여전히 그것을 믿는다면, 그는 성경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킹 제임스 성경 신자가 되려면 창세기 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일부 형제들의 암시는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을 믿는 데 필수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안정한 사람들의 또 다른 전술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묘한 비하와 조롱이 “반항적인” 형제들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는 운동의

독특한 특징으로 갱을 브랜드화하여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은 성경 신자들이 갱 이론에 대한 고려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는 갱 이론을 검토해 본 결과, “건전한 말씀”(딤후 1:13)과 “건전한 교리”(딤후 4:3)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건전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창세기 갱의 기초는 거미줄과 면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배였다면 허리 깊이의 물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문제들

갯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이 작은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많은 약점 때문에 필자는 갯이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나 설명이 필요한 다른 교리들과는 달리, 창세기 갯이론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갯 시스템은 추측, 억측, 이론화, 가정 및 상상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환난 전 휴거,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 선택, 세례, 방언, 안식일,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은혜 등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제 성경 교리들은 일부 요소가 암시적이더라도, 모두 성경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침례가 있을 것이다, 택함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등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논쟁은 주로 그러한 것들이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적용되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창세기 갯이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조차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시적인 구절조차도 매우 약합니다. 그것은 추측, 억측 및 상상력을 무리하게 만드는 다른 암시적 가르침에 근거한 인위적인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간극은 있다” - 농담하십니까?

갯이론의 성경적 결함을 고려할 때, 그것을 “간극은 있다”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허위 진술이며 명백한 과장입니다. 사실은 입증 될 수 있지만, 지지자들의 열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결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며 약한 이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갯이론 주의자들은 종종 이사야 28:10, 13에 호소하며 격차를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없으며, “교훈과 교훈, 행과 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을 종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모든 부분은 다른 것들과 다른 교리를 더 쉽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모호하고 모호한 구절들을 아무리 짜 맞추려 해도 창세기 갯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형제들이 겹 이론을 “겹 팩트(간극은 있다)”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필자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론이나 의견에 불과할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떠날” 수 있었지만, “사실(fact)”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입증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리적인 오류에 빠진 것이며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 주장으로 **겹 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리의 최종 중재자로 만들었습니다.** 겹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증거가 있다면 성경 자체가 불신자들을 정죄할 수 있지만, 창세기 겹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겹이론 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 필자는 오늘날 일부 신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평편설이 겹이론보다 성경 기록에서 더 명백한 상황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구 평편설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는 “하늘들”과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시 19:1). 그러나 지구 편평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지식을 거부합니다. 지구 중심주의(Geocentris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낸, **킹 제임스 우주론²⁴**을 참조하세요).

성경은 신자는 “모든 것을 입증하라”(살전 5:21)고 말합니다. 릭크만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릭크만 박사 자신은 물론이고, C. I. 스코필드, 클라렌스 라킨, 심지어 피니스 J. 데이크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대한 위대한 수고로 인해 필자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겹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겹에 관해서는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 중 어느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교리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입증하라.”

입증: 높은 기준이 요구됨

“입증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²⁴ <https://www.preservedwords.com/kjcosmo/kjcosmo-title.html>

위해 “시도하거나 시험하다”(출 20:20, 눅 14:19) 또는 어떤 것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행 24:13, 25:7). 일단 어떤 것이 입증되면 그것은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고후 2:9, 8:24).

주장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글을 쓰려면,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사실 진술이나 매우 암시적인 정황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존재하고 마귀라고도 알려져 있지만(계 12:9, 20:2, 7 등), 그가 ‘신’ 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은 암시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요 12:31, 14:30, 16:11, 고후 4:4).

그러나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을 세상과 연결하는 다른 정황 구절(마 4:8, 눅 4:5, 계 12:9)과 구절이 발견되는 문맥으로 인해 매우 강력하게 암시됩니다.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사탄이 이 “신”이자 “통치자”라는 데 거의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판단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루시퍼에 관해서는, 사탄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구절 중 사탄과 자주 연결되는 구절은 일부 구절이 문자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고, 사탄은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루시퍼이거나 루시퍼였음을 암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절이 사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주장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루시퍼였다는 의미는 그가 “이 세상의 신”이라는 믿음보다 훨씬 약합니다.

사탄이 루시퍼인지/루시퍼였는지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독자는 이것 또는 다른 암묵적인 믿음에 대해 절대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성경은 이것 또는 저것이 사실일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결코 그러한 암묵적 믿음을 “사실”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고집하는가?

필자는 일부 근본주의자들과 성경 신자들이 왜 창세기 갭이론에 그토록 집착하는지에 대해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창세기 갭이론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생각이고, 오늘날 ‘자유주의’ 또는 ‘현대주의’로 간주되

는 신자들이 처음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기록에 대한 그들의 전형적인 보수적 접근 방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찰머스 등은 킹 제임스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을 잘못 번역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그 매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숨겨진” 교리이며, “비밀” 지식을 가진 일부 집단에 속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교리입니다(시 25:14; 아모스 3:7 등).

200년 전이 아닌 오늘날 ‘신복음주의’, 오순절주의, 심지어 침례교 목사에 의해 창세기 갱이론이 처음 등장했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를 환상이라고 일축할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방언, 영적 죽임, 영국식 이스라엘주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안식일 준수, 육식 금육, 침례 중생, 천년왕국 이후, 영혼의 수면, 지옥은 무덤, 보편적 구원, 개방적 유신론 등과 같은 거짓 또는 잘못 적용된 교리 그룹으로 격하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갱이론은 처음에 일부 보수적인 신자들이 현대 지질학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근본주의 주류에 스며 들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이론에 점점 더 많은 교리를 덧붙여 결국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책과 소설에서 아담 이전의 지구는 루시퍼가 “왕”으로 통치하던 광대한 세속 제국이었고, 그 후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나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이 벌어져 루시퍼가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우주가 물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재창조’된 후 사탄은 이브를 통해 새로운 통치자인 아담으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되찾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나리오의 현대 영화 대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갱이론 주의자들이 “사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적이고 억지스러운 교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신적 의심”이 들더라도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체면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묵적 믿음?

35년 이상 성경을 믿어온 필자는, 일부 동료 형제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 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공유하는 또 다른 특징은 일

부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현저한 불안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 주된 이유는 이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교리를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연구했다 하더라도 일부 교리가 흔들리는 근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교리를 ‘**깨웠고**’, 이로 인해 일종의 **암묵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고전 11:1) 더 성숙하고 지식이 풍부한 신자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신념 체계를 의사나 목사가 말하는 것에 기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견해에만**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 현명한 사람이 말했듯이, **“두 사람이 성경에 대해 똑같이 믿는다면, 그 중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멘토 숭배**는 근본주의/성경 신자 집단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명합니다. 신자가 존경하는 멘토의 특정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만 하면 방어가 시작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건전하고 신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왜 입증하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신자가 멘토로부터 들은 것보다 문제의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멘토의 믿음에 의존하는 암묵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필자는 일부 저명한 목사들, 특히 피터 릭크만 박사의 창세기 갭이론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면 일부 형제들의 **육신**이 드러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갭 문제를 진정으로 스스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입증하는 대신, 즉시 방어적이고 심지어 전투적으로 변하여, 자신의 스승을 “방어”하고 대리로 성경기록을 방어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조롱, 비난, 비하, 폄하, 원색적인 욕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자들 중 일부는 목사나 다른 사역자들일 수도 있지만, 신분의 미성숙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제 그들 중 일부의 말을 들어봅시다.

“자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모튼? 릭크만 박사(또는 스코필드, 라킨, 드레이크 등)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의 영웅이며, 훌륭한

성경 교사였어. 그는 자네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자네 같은 “아무데도 없는 사람”이 럭크만 박사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는 멍청하고, 자기만적인 바보이며, ‘성경을 모르는 얼간이’ 일세...”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든 아니든, 럭크만 박사의 많은 능력과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럭크만 박사(및 다른 사람들)는 창세기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며(추가 된 모든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적절하게 추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장하지만, 성경에 의해 입증된 증거는 여전히 매우 빈약합니다. *방언, 보편적 구원 또는 개방적 유신론*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창세기 갭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잘 골라낸 증거가 건전한 교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자신의 신념들이 도전받을 때 반응하는 방식은,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살전 5:21)입니다. 그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실제로 특정 믿음을 입증하는지 연구와 기도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그것을 입증한다면, 신자는 질문자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신자는 자신의 멘토나 교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스승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웅이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자들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성경을 통해 스승의 교리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귀한” 행동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찾아서 그것들이 그러한가”(행 17:11) 확인했기 때문에 “더 고귀하다”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임하신 사도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성경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면, 오늘날 목회자의 말은 얼마나 더 많이 확인해야 할까요?

부록 1

창세기 갭이론 주의자들을 위한 질문들

다음은 갭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 목록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성경이나 성경적 원리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독자가 필자와 창세기 갭이론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연구논문 전체를 처음부터 읽은 다음 이 모든 질문에 답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러한 질문(및 다른 많은 질문)을 다루었으므로, 독자도 이러한 질문을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조금이라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

- 창세기 갭이론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나요?
-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명시적인 구절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갭이론이 주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과 같은 구절에서 발견되는 다른 암묵적 교리에 근거한 암묵적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 명시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암묵적 믿음을 사실로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Gap Fact(간극은 있다)”라고 부르는가? (살전 5:21)
- 갭을 “사실”로 간주한다면, 성경 사실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성경적 기준이나 원칙을 사용합니까?
- 어떤 교리가 결정적으로 입증될 수 없음에도 성경의 “사실”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심지어 기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같은 주제를 다루는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명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가?
-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출애굽기 20장 11절, 31장 17절, 느헤미야 9장 6절, 막 10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더 명확한 진술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창세기 껍을 허용하기 위해, 위의 분명한 성경 구절들이 정상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설명”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주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압도적인 성경적 원리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껍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구절들(이사야 14장, 45장; 예레미야 4장; 출애굽기 28장;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해 다른 가능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전한 교리”는 약점을 특징으로 하지 않고 건강하고 견고한 교리를 말하는데, 매우 약한 기초를 포함하여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껍 이론이 어떻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 성경에서 “created(창조 된)” 과 “made(만들어진)”이라는 단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의 물질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창조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까?
-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늘들”, “하늘들의 하늘”(셋째 하늘), 하늘의 “무리”, “땅”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made(만들었다)”고 말한 느헤미야 9:6과 이 믿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 에스겔 28:13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2:8, 15에 나오는 “에덴 동쪽의 동산”을 가리킨다고 믿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이 명백한 연관성을 뒤집을 수 있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 킹 제임스 성경의 “replenish”가 다시 채우다(fill again or refill)를 의미한다고 믿습니까?
- 그렇다면 1611년에는 “fill again” 또는 “refill”의 정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replenish가 “풍성하게 채우다”를 의미했는데, 어떻게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 현재의 의미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향상된 계시*라고 믿는다면, KJB가 출판된 후 200년이 넘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전의 모든 신자들이 그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 1611년 이후 KJB의 일부 단어가 의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let(하자)²⁵”(롬 1:13)와 “prevent(막다)²⁶”(살전 4:15)와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를 청취자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그렇다면 replenish 말고 그러한 단어들의 다른 의미 설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성경적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화석의 존재와 지질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껍을 사용합니까?
- 그렇지 않다면, 본질적으로 껍을 장려했던 초기 근본주의자들(웬버, 스코필드, 라킨 등, 심지어 그의 초기 저작에서 러크만까지)은 지질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껍이론을 사용했습니다. 그 논쟁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창세기의 간격이 수백만 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 즉 지질학적 연대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면, 그 간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창 1:31)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때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까?
- 그렇다면 그 전에 루시퍼/사탄의 타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좋았다”(창 1:25)고 선포하신 이후 단 한 가지(사람)만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 창세기 껍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나 다른 사람(책, 오디오, 설교자 등)을 통해서였습니까?
- 창세기 껍 이론을 접하기 전에는 문자 그대로 6일간의 우주 창조(재창조가 아님)를 믿었습니까?
- 그렇다면,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나 증거로 인해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창세기 껍이론은 일반적인 성경 독자들이 이해하기는커녕 스스로 찾기도 어려운 숨겨진 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²⁵ let는 ‘하자’가 아니라 ‘막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음

²⁶ prevent는 ‘막다’가 아니라 ‘앞서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음

- 비슷한 숨겨진 특성을 가진 다른 성경 교리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창세기 갭이론 교사의 입장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갭 이론의 실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분명 많은 지지자들이 이 질문의 절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 이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입증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든 것을 입증하십시오!”

부록 2

간극(갭) 이론을 무효화 하는 구절

창세기 갭이론은 창세기 1:3-31의 창조가 이전 지구의 잔해 위에 재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성경 교리일까요? 성경적으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준비하기

성경과 성경을 효과적으로 비교하려면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학습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성경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 상식적인 원칙의 목록입니다.

1. 명시적 진술은 항상 암시적 진술보다 우선한다.
2. 문맥에 맞는 성경 말씀은 문맥을 벗어난 진술보다 항상 우선한다.
3. 문맥에 맞는 명시적인 성경 말씀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됩니다.
4. 명확한 성경 말씀은 항상 같은 주제를 다루는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거나 유추된 말씀보다 우선합니다.
5. 추론에 근거한 교리는 추론의 본질상 명백한 사실로 간주될 수 없다
6. 추론에 근거한 교리는 명시적 진술이나 더 강력하게 추론된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전히 입증된 사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7. 진술 간에 명백한 상충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경론적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예시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성경의 참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방법(*How To Determine True Bible Facts*)이라는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의 기본적이고 잘 정립된 원칙을 사용하여 창세기 갭의 주요 주장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기

먼저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1)
-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1)
-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3)
-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2, 5; 사 45:7)
-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11)
-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24)
-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1:26)
- 하나님은 하늘의 무리(거주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 2:1)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골 1:16)
- 하나님은 여섯째 날이 끝날 때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창 1:31)

이것들은 모두 명백한 진술이므로 성경 신자에게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성경적 사실들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창조에 관한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창 1:31)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의 즉각적인 범위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명시적인 진술입니다. 이제 이 사실과 앞의 사실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결론을 주목하세요,

- 하늘은 “매우 좋다”
- 땅은 “매우 좋다”
- 빛은 “매우 좋다”
- 어둠은 “매우 좋다”
- 식물은 “매우 좋다”
- 동물은 “매우 좋다”
- 사람은 “매우 좋다”
- 하늘의 주인이나 거주민은 “매우 좋다”
-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매우 좋다”.

“모든 것”이 “매우 좋으”려면 전체 장에서 부패, 심판 또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마귀도, 저주도, 심판도, 죄도, 심지어 죄의 잔재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의로운 창조주에 의해 “매우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술은 간극 교리에 1마일 넓이의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루시퍼와 다른 영들이 쫓겨나고 세상이 멸망했다는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어둠’이 죄와 심판의 결과라는 주장도 무너뜨립니다. 만약 타락한 마귀와 그의 악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면, 또는 우주가 어둠의 심판에 휩싸여 있다면, 주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매우 좋았다”고 부르실 수 없습니다.

겉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단순하고 직설적인 의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이 시기에 존재했으며 창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이 명백한 진리와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다섯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들에 대한 도전

1 - 다른 명시적 진술 찾기

창세기 1장 31절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문맥 내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예외를 만드는 다른 명시적 진술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6절에서 주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 표현은 수정이나 조건 없이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명시적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창 2:17)

이 이후의 명시적이고 동일한 문맥의 진술은 이전 진술에 조건이나 예외를 두어 수정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수정 문장이 몇 개 있지만, 겉이론 주의자들

은 창 1:31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인 창조 문맥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 - 문맥 또는 범위에 대한 이견 제기

이 구절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문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갱이론 주의자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면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창조의 여섯째 날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 모호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부터 오늘날까지 창세기 1장 31절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창조 주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 해석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인 “성경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때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는 원칙을 충족시키며,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매우 명확한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이 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완벽히 이해됩니다. 이 말씀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힌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보라”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이전의 “좋은” 명령과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신 모든 것과 그 명령에 대한 강조가 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주님은 마지막 “좋은” 선포 (아담) 이후 단 한 가지 만 추가로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 창조 된 단 하나의 것에 대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어적 실수를 하지 않으시므로, 해석과 해석학에서 통용되는 모든 원칙에 따르면, “매우 좋았다”는 선포는 그 범위를 축소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우 좋은”이라는 문장이 일주일 전체를 포함하지만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만들어진 것만 포함한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모두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2절 이전에 루시퍼/사탄의 창조와 타락을 끼워 넣은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지 않은 척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본문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영적 사악함”(엡 6장)으로 “높은 처소들”을 채울 수 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다고 믿기를 기대하는 건가요? 또한 2절의 “물”은 좋지 않습니까? “깊음”은 좋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이 제시하는 직설적인 그림은 하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의 범위를 제한해야 할 문맥상 또는 명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갭이론 주의자들은 “every thing(모든 것)”이 everything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²⁷

참고: 일부 갭이론 주의자들은 2절의 “어둠”을 다루는 또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성경 대부분에서 어둠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계획을 세운 다음, 암시적으로 2절의 어둠도 부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2절이 창조를 다루는 긍정적인 구절이 아니라 죄와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상징과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을 혼동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갭이론 주의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어둠도 창조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으며(사 45:7), 물리적 현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갭이론 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31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둠은 “매우 좋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3절에서 4절과 5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발견되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은 같은 어둠입니다. 갭이론 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동일한 어둠이 여전히 존재하며 (추위와 함께) 우주의 지배적이고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온 지구와 우주는 여전히 옛적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추정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시나리오에서 이 상황을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은 갭이론 주의자들이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혼동하지 않으셨다면 사탄, 마귀 또는 심판(어둠)에 휩싸인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천국의 “주인” 또는 거주민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²⁷ 역자 주: 성경에 every thing은 25회 나오지만, everything은 나오지 않음

“매우 좋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껍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명료한 진술의 힘과 권위는 반대되는 개념을 쉽게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이 정확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3 -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쟁

창세기 1장 31절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단어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어의 의미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이 단어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껍 이론 주의자들도 “매우 좋은” 또는 “모든 것”의 명백한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몇몇 사람들이 “모든 것”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필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고래들과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모든”의 범위는 창조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을 언급하며 처음 등장합니다. “좋았다”에 대한 제한도 암시되지 않습니다. “좋다(Good)”는 “의롭다(righteous)”보다 훨씬 더 강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good)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17). 이보다 더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껍 이론 주의자들은 용어를 혼동하는 최후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주님은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는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루시퍼라는 이름의 그룹을 만드셨는데, 이 그룹은 나중에 사탄으로 변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았다면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

님이 루시퍼/사탄의 존재를 만들었지만 타락 후 그가 된 방식, 즉 교만과 죄로 그를 (악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또한 1:2에서 하나님이 땅을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께서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도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이 창조된 후 (나중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것을 부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에 어긋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이 루시퍼/사탄에게 적용되어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는 말씀이 루시퍼/사탄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이는 그에게서 죄악이 발견된 후에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이고 무모한 주장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말 건전한 교리라면 이러한 모든 인위적인 주장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깐이론 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전술은 관련성이 없는 정황적 ‘증거’를 잔뜩 집어넣어 잘 속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루시퍼/사탄은 언제 창조되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의 타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마귀들은 언제 생겨났나요?” “죄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나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어디에 넣을까요?” 등등 계속됩니다. 이 모든 질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깐이론 주의자들은 이 질문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깐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만, 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장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둠”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어둠이 부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많은 수의 간접적이고 암시적이며 문맥에 맞지 않는 진술이 명확하고 명시적이며 문맥에 맞는 진술을 반대로 극복 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독자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그 계락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암시적 진술, 유형, 반대 유형, 상징 또는 비유가 성경의 명시적 진술 하나를 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4 - 비유라고 주장하기

또 다른 가능한 도전은 명시적인 진술이 비유이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창세기 1장 31절이 비유라는 힌트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명백한 비유는, 창세기 3장 5, 7절에 나오는 “눈이 열리리라”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거나, 악의 진실에 대한 “영적”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브가 나무가 “먹음직하다”라는 것을 “본”(창 3:6) 이후로, 그들의 육체적 눈이 창조 이후 문자 그대로 닫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므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실이 열리거나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31에는 그런 비유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 - 추론 방법에 대한 도전

창세기 1장 31절의 명백한 의미를 전복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은 추론 방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그들은 명시적 진술이 진리의 최고 표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무지한 주장입니다. 암시적 진술의 추론을 명시적 진술과 같은 수준의 표현으로 간주하면 모든 진술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일부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잘못 유추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요 21:22-23)

‘형제들’은 베드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유추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면.....”으로 시작하는 조건문임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같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진술과 동등한 수준에 놓여야 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
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묵시적 진술은 오해할 수 있지만 명시적 진술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교리를 삽입하기 위해 명시적 진술을 암시적 수준으로 약화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성경의 모든 진술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단 하나의 명시적인 구절만 살펴봤지만, 이 구절은 깎이론 주의자들의 주장을 본질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해서 그것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진술은 단순히 창조의 범위 내에서 “좋지” 않은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깎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깎이 생기기 전, 생기는 중, 생긴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이 “매우 좋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창세기 1장 31절이, 토마스 찰머스가 깎이론을 개발한 원래의 이 유인 지질학적 연대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은 금지하지 않지만, 루시퍼와 그의 “마귀들”이 우주를 멸망시키고 타락시켰다는 현재의 근본주의적 깎이 주장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스스로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깎이 성경의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문맥상 명백한 이 한 문장은 전체 아이디어에 몽키 렌치를 던집니다.²⁸

창세기 깎이는 추론된 믿음과 암묵적인 진술에 근거한 교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벧후 3장 및 기타 몇 군데에서

²⁸ ‘몽키 렌치를 던지다’는 영어식 표현으로 프로젝트, 활동 또는 계획에 방해, 좌절 또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임

추론한 내용을 창세기 1장 2절에 삽입하는데, 이는 더 나은 장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사탄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는 루시퍼의 타락을 언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유추에 의한 믿음입니다. 두 존재가 같은 존재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구절은 없고, 단지 추측일 뿐이며, 요한복음 21장 22-23절에서 보았듯이 암시적 진술에서 추론한 내용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갯이론 주의자들이 고려해야 할 질문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갯이론 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다음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1.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모든 것” 과/또는 “매우 좋았더라”라는 단어의 범위나 문맥을 갯이론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도록 제한하는 명시적인 성경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2. 창세기 1장 31절의 “모든 것” 과/또는 “매우 좋았더라”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당신의 갯이론의 견해와 일치하도록 바꾸는 어떤 명시적인 성경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들의 주장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명시적인 성경 말씀이 없다면, 갯이론은 성경의 지지가 매우 약한 단순한 추측성 이론에 불과하다.

부록 3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오해하는 사람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둠’이 이전 땅의 죄와 심판의 결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껌 이론으로 알려진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의 어둠은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이거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초기의 물리적 현실의 자연스럽고 기본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아래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프리 마디스 형제가 쓴 ‘창세기 껌 노트’라는 제목의 논문을 비평할 것입니다.

마디스 형제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인생의 대부분 동안 창세기 껌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설득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에 대한 KJB 연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조명하는 이 성경적 증거의 무게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GOOD) 일이었을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마디스 형제는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어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욥 10:21-22, 30:26; 시 88:6; 사 5:20; 아모스 5:18, 20; 나 1:8; 스 1:15; 요 3:19; 행 26:18; 엡 6:12; 요일 2:11.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 어느 것도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들은 교훈적입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저는 누구든지 JKB(sic²⁹)에서 ”어둠“을 강력하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묘사하는 단 한 구절이라도 찾아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좋은(GOOD) 것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마디스 형제는 “...어둠은 항상 나쁜 것을 의미한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합니다. 필자는 마디스 형제가 여러 수준에서 실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²⁹ sic, 원문 그대로(틀린 원문을 인용할 때 틀린 부분 다음에 [sic] 표기함

바입니다. 또한 그가 위에서 “이 구절들 가운데 어느 구절도 창세기 1:2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창조의 맥락에서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문맥적으로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상징적, 해석학적으로도 어디가 틀렸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마디스 형제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어둠을 묘사하는 한 구절을 찾으려는 도전과 관련하여, 그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인 창세기 1장 2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을 부정적 전제 없이 평범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읽으면, 전체 장에서 부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조는 매우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창 1:31).

마디스 형제는 창 1:31의 “매우 좋았더라”는 선언 이후에 발생하는 영적 어둠에 대한 암시적인 구절을 읽음으로써, 이 구절에 부정적인 추론을 삽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맥상의 오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성서 연구 원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시적 진술은 항상 암시적 진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은 1:31의 명시적 선언이 수많은 암시적 진술이나 유추된 믿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문맥에 맞는 성경 진술은 항상 문맥을 벗어난 진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도 31절이 구절의 이해를 지배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디스 형제는 **문맥 내에서 명확하고 명시적인 구절을 전복시키기 위해, 문맥 밖의 암시적인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두 가지 규칙을 모두 위반합니다!

창세기 1:31이 어떻게 창세기 격차에 대한 근본주의 사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살펴 보려면, 부록에 있는 **꺾이론을 무효화하는 구절**을 참조하십시오.

영적 어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디스 형제가 “어둠”을 대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그가 **육체적 어둠과 영적 어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둠은 육체적인 어둠이지만, 이후 이 단어의 많은 용례는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둠”을 가리킵니다. 육체적 어둠은 물리적 빛이 없는 상태이고, 영적 어둠은

죄, 자아, 심판 등에 대한 내면의 조명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육체적인 어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물리적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요한복음 1:9).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 자신, 진리에 대한 빛 또는 조명을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악행을 비추거나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도 이에 대해 말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사람의 몸은 물리적인 빛이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육체적 어둠과 영적 어둠을 혼동하기

페이스북 그룹에서 어둠에 대해 간단히 토론하는 동안 필자는 영적 어둠의 특성을 육체적 어둠에 적용하려는 일부 사람들에게 “육체적 어둠이 영적 어둠과 혼동되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디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어둠이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빛은 영적인 빛을 상징합니다.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마디스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육체적 어둠은 영적 어둠의 한 유형이 아니라 영적 어둠의 상징입니다. 상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없더라도 다른 것(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물체,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

이것이 바로 육체적 어둠이 추상적인 영적 어둠의 측면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물리적 어둠이 육체적 시야를 방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둠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단순히 시력을 방해할 뿐입니다. 육체적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둠이라는 사실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어둠 자체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실제로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되었고, 어둠 없이는 완전한 “낮”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어둠이 영적 어둠의 상징 또는 대표라는 점은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육체적 어둠이 육체적 시력을 방해하듯, 영적 어둠은 영적 시력이나 빛을 방해합니다. 표현의 방향이 상징에서 상징되는 것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주목하세요. 결코 상징되는 것에서 상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할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상징들을 살펴보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입니다.

-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창 9:13; 겔 1:28; 계 4:3
- 계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상징. 창 28:11-13; 요 1:51
- 천둥, 번개, 구름, 연기: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의 상징.
출 19:16-18; 24:17; 시 97:2, 4; 계 4:5; 계 8:5; 계 11:19
- 천둥: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시 29:3; 68:33
-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출 19:19; 계 8:6
- 흰 머리: 지혜의 상징. 단 7:9; 계 1:14
- 바람: 성령의 상징. 요 3:8; 행 2:2
- 불: 성령의 상징. 행 2:3
- 비둘기: 성령의 상징. 마 3:16; 막 1:10; 눅 3:22

성령이 바람, 불, 비둘기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 가지를 주목하세요. 성경에서 영적 어둠만큼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과 지옥의 상징

으로도 사용되는 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불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열쇠는 상징화된 대상은 일반적으로 상징의 한 가지 주요 특징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람의 상징을 가진 성령의 경우, 바람의 핵심 특징은 바람의 보편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요 3:8) 알 수 없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어떻게 그들을 중생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 같은 혀”에서 사용되는 불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것이 어떻게 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불이 상징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도는 불이 어떻게 소비하고 정화하는지를 말합니다(마 3:10-12). 비둘기의 경우 순결, 깨끗함,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상징과 상징되는 것을 뒤집으면 매우 빠르게 잘못된 비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람, 불, 비둘기 등의 요소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이것이 마디스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은 불, 바람 또는 어떤 동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러한 대상에 그분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리적 사다리(“야곱의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창 28:12), 천둥이 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시 29:3). 성경에서 죄와 타락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핵심 상징인 누룩을 사용하면 이 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룩의 평행 기호

누룩은 팽창제이며 오늘날 주로 효모 또는 베이킹소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 누룩은 빵이나 기타 구운 음식에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팽창시킵니다. 그러나 영적 또는 비유적 누룩은 무언가가 다른 것 안에 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음식이나 반죽에 누룩을 넣어 전체에 퍼질 때까지 발효시키는

잘 알려진 관습을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늘의 왕국’이 작은 시작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사역의 그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누룩은 신약성경에서 부패의 확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 16:6-12)

이 구절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적용을 놓치고 육체적인 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그들은 이해합니다. 누룩은 다른 곳에서도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고전 5:6-7)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갈 5:9)

따라서 육체적 어둠이 영적 어둠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육체적 누룩은 영적 누룩의 상징입니다. 영적 누룩은 부패와 죄를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육체적 누룩도 어떤 식으로든 부패하거나 심지어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빨리 쫓겨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무교절(출 12:39)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빵에 누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레 23:17, 아모스 4:5).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 누룩이 악과 부패의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는 악하거나 부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의 누룩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이나 부패의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육체적 어둠은 그러한 것들의 상징일 수는 있지만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창조 초기의 어둠에도 죄와 심판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누룩과 어둠이 부정적인 것들의 상징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룩과 어둠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그런 상징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의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성경의 상징, 유형 또는 비유를 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까지 어둠과 관련된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을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은 독자가 텍스트에 삽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의 특성을 반 유형에 강제 적용하기

상징의 가까운 친척이 유형입니다. 유형은 “공유된 특성을 기반으로 한 그룹”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유형이 있으며, 물론 가장 “유형화된” 인물 중 한 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 9절의 불 뱀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그분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4-15). 모세의 성막은 또 다른 유형입니다(출 40:2,34; 히 9:11; 골 2:9).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을 21명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일 수 있지만 구약의 몇몇 인물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 아담(롬 5:14),
- 아벨(히 12:14),
- 아브라함(엡 3:15),
- 아론(히 5:4-5),
- 다윗(시 89:18-19, 빌 2:9),
- 이삭(히 11:17-19),
- 야곱(요 11:42),
- 요셉(창 15:19-20),

여호수아(히 4:8-9),
모세(행 3:20-22),
노아(고후 1:5),
솔로몬(삼하 7:12-13, 눅 1:32-33) 등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anti-type(반 유형)³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대표하는 특성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을 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즉, 합법적인 성경 유형은 해당 진리가 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다윗의 후손이며 솔로몬도 그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미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류 또는 심지어 이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예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유형의 그리스도는 몇 가지 중요한 ‘인생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결혼했고 자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고안하고 싶다면 유형과 상징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그분의 모든 유형의 목록을 작성하고, 결혼이 좋은 모든 장소를 보여주고, 솔로몬의 노래와 같은 책 전체가 결혼 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형화하는지 보여주고, 표면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모두 연기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유형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형과 상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반 유형 또는 상징화된 것에 대해 알려진 것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상징과 상징을 혼동하는 오류는 마디스의 주장에서 가장 큰 결함입니다. 성경이 나중에 어둠을 악, 심판, 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어둠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특성의 결과이거나, 그 단어가 발견될 때마다 영적 대응물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현명한 사람이 말했듯이,

“어떤 물리적 실체가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물리적 실체가 언급될 때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

³⁰ 원형에 의해 예시되는 것, 반대의 형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의 ‘누룩’에서 보았듯이, 이 말은 사실이며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도 해당됩니다.

어둠이 긍정적이거나 선할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매우 좋았더라”는 말씀에 어둠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표현 외에도 성경에는 어둠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이집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둠을 사용하신 방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구름과 흑암”을 두신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은 어둠” 가운데 거하셨던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출 20:21, 왕하 8:12, 대하 6:1). 어둠의 또 다른 이름은 “밤”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1장 5절에서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둠이 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물리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일어났을 때(출 12장)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출 12:42)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도 밤에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민 11:9). 그것이 긍정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고파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1-2은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낮에는 낮이 말을 하고 밤에는 밤이 지식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낮과 밤은 모두 인류에게 말을 걸며, “밤”은 “지식”을 가져다줍니다. 물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잠 1:7)

성경은 육체적 어둠과 밤이 그 자체로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

히 밝히고 있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성경에서도 종종 그렇게 사용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인 적용을 물리적 대상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합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토론에서 마디스 형제는

“어둠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암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앙’ (사 45:7)처럼, 어둠은 루시퍼의 타락 이후까지 존재하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디스가 어둠이 악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케이크도 먹고 떡도 먹으려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순수하신 분이데, 그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불결한 것, 즉 죄가 아닐까요?

또한 그의 발언에 담긴 거대한 전제에도 주목하세요.

그는 어둠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며, 루시퍼 이전에는 어둠이 불필요했고,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야 어둠이 생겨났으며,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악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재앙(죄가 아닌 부정적인 것의 의미에서)을 창조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많은 깎 지지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양한 추측을 사실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웅변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술에서도 마디스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빛이기 때문에 영적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육체적 어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밤 어둠이 오면 우리는 죄와 심판에 가려지고, 빛과 함께 낮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의와 진리에 몸을 담그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

다. 도덕적,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육체적 밤은 육체적 낮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것이 어둠인가요?

마디스는 그의 껌 주석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현재 우주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어둠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우주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우주,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의 손아귀에 있는 우주입니다.”

첫 문장에서 마디스의 말은 대부분 옳습니다. 물리적 어둠과 차가움(사람들은 항상 차가움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은 우주의 기본 상태입니다. 물리적 생명을 가능하게 하려면 빛과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인용문은 창세기 1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디스는 우리가 “타락한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단지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창 3장), 우주 전체가 타락했거나 저주받았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누가 어둠을 두려워하는가” 장에서 어둠의 기원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적 현실을 처음 창조하신 논리적 결과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잘못 적용된 구절

안타깝게도 마디스 형제는 자신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전형적인 사람으로, 때때로 자신의 교리에 부합하도록 구절을 “변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는 그가 사 50:3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즉, 둘째 하늘)은 이유가 있어서 검은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캄캄함으로 하늘들을 입히며 굵은 베로 그것들의 덮개를 삼느니라” 이사야 50:3 [sic]. 성경에서 “굵은 베”는 애도와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인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창세기 1:2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우주가 애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이 구절은 “하늘”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sky, 공중) 하늘과 두 번째 (space, 우주) 하늘이어야 하지만 그는 그것을 두 번째 하늘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두 하늘이 모두 어두우면 빛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칠혹같이 어두울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하늘을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출 10:21) “질은 어둠”으로 어둡게 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 50:3의 문맥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사 50:2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과 나중에 유프라테스가 말라버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타락한 상태이며 일종의 영원한 슬픔에 빠져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시편 19:1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슬픔에 빠진 타락하고 저주받은 하늘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롬 5:2) 동일한 영광의 일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고후 4:6)에 대한 지식입니다! 마디스는 심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저주받은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시편 8:3도 참조하세요.

요약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이 죄와 심판의 결과여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은 빛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분은 그것을 우주의 기본 상태의 일부로 만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마디스 형제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한 점은, 창세기 3장(롬 8:22)의 인간 타락 이후에는 그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더 타당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견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창세기 1장 31절의 문맥상 명백한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갭이론 주의자들은 창조의 맥락에서 성경을 사용하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매우 좋았다”가 아주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해야만 합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암묵적인 진술은 이 하나의 명시적인 명령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적 증거 없이 그들의 껌 주장을 허용하기 위해 둘 중 하나의 범위를 어떻게든 제한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견을 “사적인 해석”(벧후 1:2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